

65세 이상 스님들 대부분 노후 걱정에 '시름'

조계종 승려복지회 세미나서 전수조사 발표

조계종 65세 이상 노스님들 중 73% 이상이 노후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승려 복지제도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지현)는 6월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승가복지 연구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승려복지회는 4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조계종 65세 이상 전체 노스님 1839명을 대상으로 '승려노후복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회수된 설문지 372개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윤남진 소설리서사&멘트로공동대표는 '노스님 복지실태 조사 및 전달모델 개발 시사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조계종 스님 73.7%가 노후를 불안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님들은 노후생활을 불안케 하는 요소로 '건강'(68.5%)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설명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은 '건강문제' 다음으로 수행·포교의 약화(8.1%), 낮은 소득(7.0%), 주거문제(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비구스님이 건강문제(53.7%), 주거문제(14.0%), 낮은 소득(11.6%), 수행·포교 약화(9.1%) 순이었고,

비구니스님은 건강문제(76.1%), 수행·포교 약화(7.3%), 낮은 소득(4.0%), 주거문제(2.4%) 순이었다.

노후준비여부는 '없다'가 65.9%로 다수가 노후준비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과 수령도 미비한 수준이었다. 국민건강보험 미가입률은 27.5% 정도이고, 응답자 중

노후 걱정 1순위는 건강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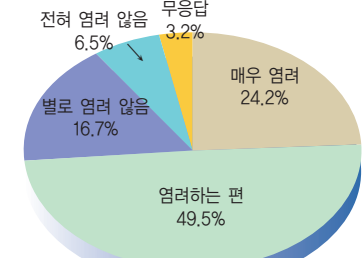
정작 국민건강보험 가입 저조

종단 노후수행관 입주 의지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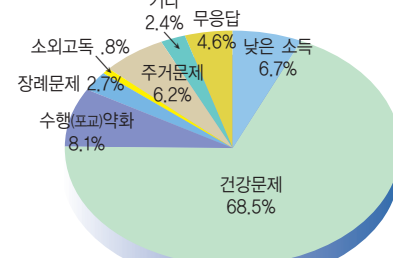
교구별 복지·수행관 마련 필요

28.2%만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에서 분사별로 건립예정인 노후수행관 입주 희망여부에 대해서는 40.9%가 입주를 희망한다고 해 높은 욕구를 보였다. 또 입주비용에 대해서는 60.5%가 무료 제공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노후수행관 건립시에는 치료·요양기능(35.2%), 생활공간 독립성(23.9%), 수행을 위한 환경(20.8%)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노후생활 염려정도



노후 불안요인

윤 대표는 "출가공동체에서 주거와 수행을 비롯한 노후복지의 문제는 일반사회와는 다른 특수성이 다수 존재한다. 가족과 지역, 정부로부터 분리나 단절이 심한 조직체이고 무엇보다 종교공동체"라며 "출가공동체의 노후설계는 이런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교구별 승려복지 활성화는 불교적 전통을 지키며 승려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재현 월정사 종무실장은 '조계종 교구승려복지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종단의 근간을 유지하는 핵심이 교구이며, 종단의 승려복지 물적기반은 교구"라며 "교구를 기반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구 특성에 부합하는 승려복지체계를 갖추어 발전 계기로 삼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뢰비 및 요양비 지원 또한 교구

차원에서 부담키로 하고 부담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중앙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식 공제회도 승려 복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박근수 중부대 교수는 "그 동안 승려복지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이 실패한 이유는 재원 조달이 문제였다"며 "수행연금의 성공적 착근을 위해 협동조합형식 공제회도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승려·교구·총무원 등 3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제조합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임의 가입형식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은 의무가입토록 하고 제도운영은 승려복지회에서 책임을 지되 기금운영은 전문성을 가진 재가불자를 중심으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6월 10일 열린 조계종 총종 도의국사 다례제에서 추모사를 하고있다.

“종조 가르침따라 살겠습니다”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 다례제 봉행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6월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종 도의국사 추모다례를 봉행했다.

종정 진제 스님은 원로의원 혜승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고급에 선공이 널리 흥성함은 국사의 은혜가 사해오호에 가득함 이로다"라고 설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국사께서 몸소 비움과 나눔을 통해 이 땅의 못 생명들에게 조화와 상생이라는

보살행을 펼친 이래로 불교는 이 땅의 백성들과 지혜와 자비를 나누는 실천을 계속해 왔다"며 "빈부와 귀천, 이념과 종교, 인종과 피부색에 의한 차별을 넘어 평등과 존엄의 가치위에 설 때, 우리의 생존이 모든 유정, 무정의 도움과 은혜 속에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인식할 때 참다운 공동체가 구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례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 원로의원 혜승 스님, 인환 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장 향적스님, 호계원장 일면 스님 등이 참석했다.

신종원 기자

국가상대 토지 환수 공로 치하

장경사 경우 스님, 총무원장 표창

국가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소송을 진행해 삼보정재를 보호한 장경사 주지 경우 스님(사진)이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받았다. 장경사 주지 경우 스님은 6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경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으로부터 표창패를 받았다.

이날 자승 스님은 "장경사 승소 판례는 좋은 선례로 남아 다른 사찰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표창의 의미를 전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장경사 승소 판례는 좋은 선례로 남아 다른 사찰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표창의 의미를 전했다.

이와 함께 자승 스님은 박경호 변호사에게도 감사패를 수여했다.

노덕현 기자

제1회 대원상 후보 공모 콘텐츠대상작 응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에서 제 1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한다. 포교대상은 출가와 재가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3팀 이내로 선정하며 상금은 총 5,000만원 이다. 출가 부문은 현대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업적이 많은 스님 혹은 중심의 단체 및 기관이다. 단체 및 기관은 설립 3년 이상이며 회원 10명 이상이다. 재가 부문은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 설립 3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이면 된다. 이와 함께 불교진흥원은 콘텐츠대상작품도 응모도 함께 진행한다. 내용은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할 주제와 소재로 한 콘텐츠로 응모 부문(개인 혹은 단체) 스토리텔링 대본 내용 등 제출 A4용지 10매~30매 이내로 제출하면 된다. 장르는 스토리텔링 △다큐멘터리 △영화, 애니메이션 등이다.

접수기간은 2013년 9월 16일~30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bpf.org)공지사항서 확인 가능하다. (02) 719-2606, 1855 정혜숙 기자

싸이 연등...“질 좋은 포도주에 콜라 섞는 격”

푸른 눈 수좌 현각 스님

비구니 스님 투표 허용 주장 수행자 정진 담은 영상 제작 중

“부처님 등 옆에 싸이 연등을 세우는 것은 성당에서 예수님과 소녀시대를 나란히 세워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출가자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구니 스님들에게도 투표권을 허용해야 합니다.”

(만행)의 저자 현각 스님(독일 뮌헨 불이선원 선원장)이 연등회, 조계종 차기 총무원장 선거에 대해 불교계에 쓴 소리를 쏟아냈다. 6월 8일 불교여성개발원이 주최한 법회에서다.

봉축을 맞아 5월 15일 입국, 3주간 한국에 머문 스님은 '한국불교의 세계화'란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스님은 연등회에 대해 불교의 대중화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근 문화재로 지정된 연등회가 일반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만행>의 저자 현각 스님(독일 뮌헨 불이선원 선원장)이 연등회, 조계종 차기 총무원장 선거에 대해 불교계에 쓴 소리를 쏟아냈다.

콘텐츠로 재편되면서 불교에 대한 의식마저 저버리게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스님은 독일에서 온 제자와 함께 방문한 한국 사찰에서의 실망스런 경험담을 얘기했다.

부처님오신날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등으로 장엄된 사찰을 거닐던 스님 일행은 보게 됐다. 순간 한국 불교의 사상과 전통에 대한 이야기는 단절됐고, 출가발심했던

제자는 한국 불교 문화에 실망해버렸다.

스님은 시류에 휩쓸리듯 원칙을 잃어버린 불교 대중화에 대해 “질 좋은 포도주에 콜라를 섞는 격”이라며 “부처와 싸이는 동격이 아니다. 성당에서 예수님과 소녀시대를 나란히 세워두는 게 상상이나 되는 일이나”며 일갈했다.

10월에 있을 조계종 차기 총무원장 선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스님은 “출가자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에게도 투표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교를 세계화 하는 방법으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현각 스님은 수행자의 정진모습을 담은 동영상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짝 공개했다. 사회와 어울려 살아가는 선승의 일상을 엮음 소리에 맞춰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는게 스님의 설명이다. 영상은 완성되는 대로 유튜브에 게재, 세계인들에게 한국 불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배현진 수습기자

이번여름은 삼선을 제대로 배우봅시다 6일간의 깨달음

전문참선수련회

참선 단식

입재부터 회향까지 참선을 40년이상 꾸준히 해온 스님이 직접 화두 참선을 지도합니다

차수	날	짜	선택	장소
수련7차A	6.28	- 7.3	무단식	활인선원
수련7차B	7.19	- 7.24	무단식	활인선원
수련8차	7.26	- 7.31	단식	활인선원
수련9차	8.15	- 8.20	단식	활인선원
수련10차	8.23	- 8.28	단식	원명선원

참소년 대학생 일반 5박 6일 단기출가 30일 50일 100일

곧바로 강화되는 체질단식 특별회비무대-개산5주년기념

제주 원명선원 경기양성원 경기도안성시 죽산면 비룡산

자세한 내용은 www.hwain.net 에서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 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개정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II

추천 도서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김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가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던 일률성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자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미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찬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과를 이룬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지재만현 큰스님 김수, 법상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담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추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